

도쿄에서 약 3시간이면 접할 수 있는 일본의 전원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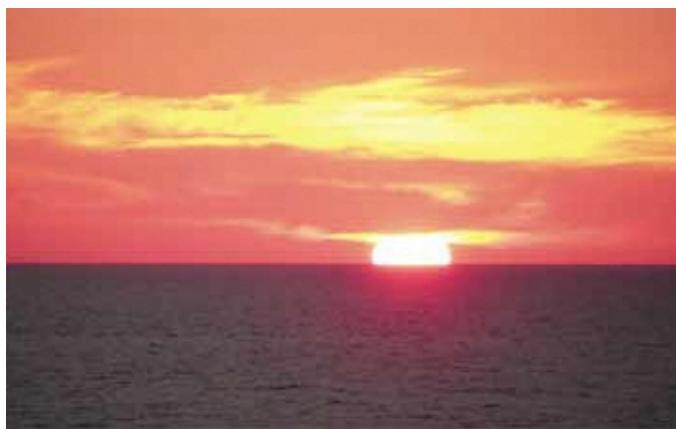
니가타 현 무라카미 시

오랜 역사를 지닌 성곽 마을인 니가타 현 무라카미 시.
꼭 쟁겨서 봐야 할 바다의 절경, 무라카미에서 만날 수 있는 일본의 식문화,
일본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마쓰리(축제),
풍경을 즐기며 유유히 쉴 수 있는 공간인 온천 료칸, 에도시대 때부터 소중히 이어져온 것,
성곽 마을의 운치가 묻어나는 거리, 장인들 손으로 빚어진 전통 공예품,
풍성한 대자연 품에서 자란 「식의 보배」,
최상급의 녹차, 다양한 체험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조에쓰 신칸센(고속철도)을 타고 약 3시간이면 접할 수 있는 일본의 전원 풍경.
자, 무라카미로 떠나자 ! 「일본의 참모습」을 찾으러 !

무라카미 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메뉴」를 소개합니다.

- ① 절경 ! 아와 시마(섬)과 일본해의 저녁노을
- ② 무라카미에 전해지는 식문화 『이요보야(연어)』
- ③ 성곽 마을의 전통 마쓰리(축제) 『무라카미 대제』
- ④ 몸도 마음도 ! 힐링의 세나미 온천
- ⑤ 성곽마을 무라카미의 전통적인 마치야 순례
- ⑥ 시민력으로 부활 ! 검은 담 거리
- ⑦ 전통 기술 ! 무라카미 목조 퇴주
- ⑧ 무라카미에서 만끽 ! 니혼슈(일본 청주)와 연어 요리
- ⑨ 북쪽 한계의 차 명산지 ! 차(茶)물리에란?

1 절경! 아와 시마(섬)과 일본해의 저녁노을



일본해를 끼고 길게 뻗은 해안선은 「일본해 저녁노을 라인」이라 불리고,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무라카미 시의 「사사가와 나가레」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사가와 나가레」는 약 11km에 달하는 해안선. 국가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절경을 볼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 사이의 해 질 녘, 일본해 건너편에 자리 잡은 섬 「아와 시마」 뒤로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저물어가는 노을 풍경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입니다. 노을이 하늘, 바다, 마을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며 수평선에 녹아들어 가는 이 순간은 일본해와 공존하는 무라카미 사람들이 그리는 마음속 정경입니다.

2 무라카미에 전해지는 식문화 「이요보야(연어)」



그리고 이요보야 회관 내 한편에 위치한 것이 「시오비키(염장 건조) 도장」. 무라카미 시에 전해지는 연어 조리법은 100여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연어 시오비키」입니다. 도장에서는 연어가 거슬러 올라오는 늦가을 즈음에 「시오비키 연어」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꼼꼼히 굵은소금을 문질러 밟아 잘 저린 연어를 매달아 찬 바람을 맞춥니다. 옛 방식의 조리법을 배울 수 있기에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늦가을에서 초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연어 시오비키」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처마끝에 매달린 연어 모습은 무라카미에서만 볼 수 있는 겨울 풍경입니다.



무라카미 시에서는 「연어」를 「이요보야」라고 합니다. 무라카미 시를 흐르는 미오모테 가와(강). 그 지류인 「다네 가와(강)」에서는 에도시대 때 세계 최초로 연어 자연부화 증식에 성공했습니다. 그 어획량은 에도시대에 무라카미 번의 재정을 지탱했을 정도로, 연어는 무라카미에서는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일본 최초의 연어 박물관 「이요보야 회관」에서는 무라카미의 연어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가 거슬러 올라오는 미오모테 가와의 지류인 「다테 가와」의 강바닥을 실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3 성곽 마을의 전통 마쓰리(축제) 『무라카미 대제』

매년 7월 6일, 7일의 이틀 동안 이뤄지는 「무라카미 대제」는 600년 이상 이어져온 전통 마쓰리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곽 마을의 마쓰리. 마쓰리의 주역인 「오샤기리」는 옷칠을 하고 금은으로 장식을 한 수레. 사람들이 끄는 것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계승되고 있는 「오샤기리」로, 어떤 것은 200년 이상 이어져 온 것도 있습니다. 각 마을이 솜씨를 뽐내는 하야시(피리, 북, 징 등으로 흥을 돋우는 음악)나 장단 소리를 내며 행렬하는 동안 내내, 거리는 마쓰리 일색으로 물듭니다.



4 몸도 마음도! 힐링의 세나미 온천

약 110년 전인 메이지 37년(1904년), 석유 굴착중에 온천이 분출된 것이 기원인 「세나미 온천」은 풍부한 온천량과 높은 온도를 자랑합니다. 일본해에 면하는 시사이드 라인에는 바다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온천 리조트와 온천 호텔이 많습니다. 따듯한 온천욕과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 되며 유유히 흐르는 시간이 무라카미에 있습니다.



6 시민력으로 부활! 검은 담 거리

니가타 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 마을인 무라카미 시에는 아직도 무가의 저택이나 마치야가 남아 있습니다. 그 특징인 「검은 담 거리」. 세월의 흐름과 함께 기억에서 멀어져 간 성곽 마을의 경관. 「무라카미에 옛 그대로의 검은 담을.」이라는 무라카미 시민들의 열정이 이 거리를 부활시켰습니다. 이 정취 있는 거리는 다수의 상을 수상할 정도입니다. 성곽 마을이 자아내는 운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8 무라카미에서 만끽! 니혼슈(일본 청주)와 연어 요리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자연의 품에서 자라난 무라카미의 「식 보배」 그중 하나가 니혼슈입니다. 무라카미에서 재배된 양질의 쌀은 청정한 물과 장인의 정성 어린 수작업으로 인해 잡내가 나지 않고 마시기 좋은 니혼슈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라카미의 먹거리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어 요리」. 연어를 사랑하는 무라카미에는 조리법이 100여 가지 있다고 하며, 연어 요리 솜씨가 뛰어난 음식점도 많습니다. 삶아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습니다. 물론 니혼슈와 찰떡궁합입니다.



5 성곽마을 무라카미의 전통적인 마치야 순례

봄, 성곽 마을인 무라카미에서 개최되는 큰 행사가 「마치야 인형 순례」입니다. 전통적 가옥인 「마치야」에 전시되는 것은 대대로 전해져온 인형들. 그리고 매년 9월에 개최되는 가을의 큰 행사는 「병풍 축제」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예부터 전해져 오는 병풍을 전시합니다. 이 시기에 무라카미의 거리에는 마치야를 순례하는 관광객들로 활기찹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매력 중의 하나. 성곽 마을의 독특한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7 전통 기술! 무라카미 목조 퇴주

「무라카미 목조 퇴주」란 나무에 조각을 한 후 옻을 덧칠향이며 만드는 전통적 공예품을 가리킵니다. 에도시대에 시작되었다는 이 기술은 무라카미에 계승되었고, 지금도 장인들이 연마에 매일 힘쓰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기술은 일견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조와 정교한 조각. 「무라카미 목조 퇴주」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손주에게로 대물림하며 사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광택을 띕니다.



9 북쪽 한계의 차 명산지! 차(茶)를리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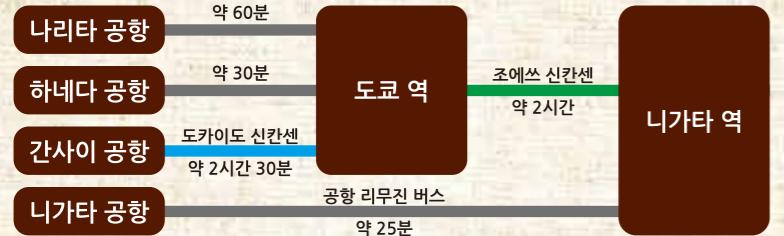
북쪽 한계의 차 명산지, 무라카미 시. 일반적으로 온난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첫잎. 추운 지역임에도 생산량이 많은 무라카미 차는 기후에 맞춰 오랜 세월 재배기술이 개량되어 왔습니다.

무라카미 차의 특징은 「그윽한 향과 단맛」. 무라카미에는 이러한 맛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 무라카미 차의 역사와 우리는 방법을 습득한 「차를리에」가 많습니다. 녹색으로 빛나는 주옥의 한 잔을 마셔보지 않겠습니까?





ACCESS MAP



니가타 현 아이돌 그룹인 Negicco가
무라카미 시를 동영상으로 소개합니다.



Negicco



무라카미시 관광협회

TEL:0254-53-2258 <http://www.sake3.com/>

